7-25-2010 주간 메세지

성시:시편 126:1-6

본문: 로마서 11:25-36

제목: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신비들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데 신실했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세상이 이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역자들이 "**경건의 신비**"(딤전 3:16)를 가르치는 데 신실했다면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골 1:27)를 가르치는 데 신실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줄곧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수천의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불경건한 것이 튀어나오면 그들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사역자들이 "**몸의 부활(휴거)의 신비**"(고전 15:51-58)를 가르치는 데 신실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며, 실제로 1948 년에 그렇게 하셨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같은 그들이 살과 힘줄이 합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완전히 죽어서 회생불가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겔 37:1-8), 바로 에스겔같은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베벨론이나 앗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로마같은 나라에 대하여는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바람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겔 37:9) 말씀하신대로 에스겔이 예언하였을 때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수많은 신실한 종들이 1948 년 이후부터 온 세상 네 바람(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중보하였을 때 그들에게 숨(성령)이 들어가서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져서 잎이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본토에 있는 14,000 여 명의 Messianic Jew 들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잎사귀들인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나나니, 이와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2-35)

이스라엘 아합왕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이 홀로 남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을 남겨두었노라."** (왕상 19:18, 롬 11:4)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11:5)고 증거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족함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태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을진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증거했다. 또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만이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증거했다. 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될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했다. 그렇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그 자신도 그 말씀을 대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것을 기도했던 것이다 (롬 11:1-27).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지난 이천 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무화과나무(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하여져서 본토에 14,000 여 개의 잎사귀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선지자 스카랴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에 관하여 예언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슥 12:10; 13:1)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증거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롬 11:26,28,29,30)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조만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씻김받아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날에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어느 누가 그분의 심판을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의논자가 될 수 있겠는가? 외치면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음에 대하여 선포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임을 증거한 것이다. 그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기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증거했다(고전 2:7-8).

1918 년 영국의 발포아 경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발포아 선언**"이라는 것을 제의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조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선언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즈음에 발포아 경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아라비아의 그랜드 머프티(Grand Mufti)가 영국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약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게 한다면 석유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의회가 열렸고 그 당시 영국의 통치자였던 윈스턴 처칠이 반대하였다. 그때 청교도 중의 한 사람이었던 존 할삼 경(John Halsam)이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아모스 9 장을 펴서 마지막 세 구절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암 9:15) 한 통치자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독일을 사용하여 영국의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게 하셨다. 지금 이 미국 땅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모르는 통치자들로 인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지진으로 토네이도로 홍수로 가뭄 등 여러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유대인들을 보살펴야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 12:3) 할렐루야!

7-25-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26:1-6
Main scripture: Romans 11:25-36
Subject: **The mystery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If all the ministers had been faithful for preserving and teaching the mysteries in the scriptures, the whole world including America might have not been so much in chaos. For instances, if the ministers had been faithful for teaching "the mystery of godliness" (1Tim. 3:16), no one should not doubt of Jesus for the birth from the virgin. If they had been faithful for "the mystery of Christ within you" (Col. 1:27), thousands of Christians might not have feared and troubled because of their unforgivable sins committed. Rather they might have been able to learn how to deal with them, knowing two different kinds of characters within them when something ungodly things come out of their life. And if they had been faithful for teaching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of body (Rapture)" (1Cor. 15:51-58), Christians would not have forsaken their faith fearing death.

We hear the mystery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through the main passage. God shall not leave Israel, and he shall lead them to the land of Palestine. Actually he did in the year of 1948. As shown to prophet Ezekiel, Israel as dry bones restored to the shapes of men as the sinews and flesh came upon them and the skin covered them above. Actually Israel returned to the old land to be independent nation again (Ez. 37:1-8). Many faithful servant of God as Ezekiel have testified of the words of God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so Israel rose again as the word of God. There have not been any words of God for the restoration of Babylon, Assyria, Persia or Rome at all. When Ezekiel prophesied as God asked to him, **" [9]Then said he unto me, Prophesy unto the wind,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the wind, Thus saith the Lord GOD;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upon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Ezek 37:9),** they lived, and stood up upon their feet, an exceeding great army. In the same way, when many faithful servants of God have been interceded for the life of Israel from four winds, the breath (the Holy Spirit) have entered into them, and the fig tree has been tender yet to put forth leaves now. The Messianic Jews (about 14,000) in the home land and other Jewish Christians living scattered in the overseas are the leaves putting forth from the fig tree.

Jesus spoke to his disciples foreseeing this time,**"[32]Now learn a parable of the fig tree; When his branch is yet tender, and putteth forth leaves, ye know that summer is nigh: [33]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34]Verily I say unto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till all these things be fulfilled. [35]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Matt. 24:32-35)**

At the time of king Ahab in Israel, when Elijah cried out to the LORD God saying only he was left alone, God spoke to him, **"[18]Yet I have left me seven thousand in Israel, all the knees which have not bowed unto Baal, and every mouth which hath not kissed him."(1King 19:18, Romans 11:4)**
Apostle Paul declared by faith even in the miserable situation of Israel that rejected the Lord Jesus Christ and killed him saying, **"[5]Even so then at this present time also there is a remnant according to the election of grace."(Romans 11:5)**

Apostle Paul testified, rather through the fall of Israel, the salvation came unto the Gentiles, for to provoke them to jealousy. He also testified, now if the fall of them be riches of the world, and the diminishing of them the riches of the Gentiles; how much more their fullness? He also said that blindness in part i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e come in; and so all Israel shall be saved nationally at the time of fullness of the Gentiles. Yes! He had believed in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and he also testified of them by faith, and he also had prayed for them to be saved through the Holy Ghost (Romans 11:1-27). Not only Apostle Paul but many faithful servants of God have interceded for Israel for their salvation for last two thousand years. Finally, the fig tree (Israel) has been tender to put forth 14,000 leaves in the home land as well as many leaves (Jewish Christians) living scattered in the world.

Prophet Zechariah prophesized that Israel shall repent to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 [10]And I will pour upon the house of David, and up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of supplications: and they shall look upon me whom they have pierced, and they shall mourn for him, as one mourneth for his only son, and shall be in bitterness for him, as one that is in bitterness for his firstborn…. [1]In that day there shall be a fountain opened to the house of David and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or sin and for uncleanness."(Zech. 12:10; 13:1)**

Apostle Paul also testified by faith in his prophesy:**"[26]And so all Israel shall be saved: as it is written, There shall come out of Sion the Deliverer, and shall turn away ungodliness from Jacob: …[28]As concerning the gospel, they are enemies for your sakes: but as touching the election, they are beloved for the father's sakes. [29]For the gifts and calling of God are without repentance. [30]For as ye in times past have not believed God, yet have now obtained mercy through their unbelief: "(Romans 11:26,28,29,30)**

Yes! Even nowadays, receiving the prayer of the faithful servants of God who believe the restoration of Israel, God shall reveal the day of salvation of Israel with repentance sooner or later.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depth of the riches both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saying,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his ways past finding out! For who hath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th been his counselor? He actually declared that the natural man could not understand the will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Only man is supposed to believe in the word of God and prays for it. He also testified that the princes of the world crucified the Lord of glory, because they couldn't understand the wisdom of God (1Cor. 2:7-8)

In 1918, Sir Balfour and a group of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presented "Balfour proclamation". This was to proclaim the Jews to be returned to their land Palestine. At the end of the war, when they were going to pass the agenda, Grand Mufti of Saudi Arabia threatened the United Kingdom saying to stop the sale of oil to them. Finally the congress denied to pass the "Balfour proclamation" Winston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made veto against it. Then Sir John Halsam , one of the Protestants stood up and was reading the final three verses of book of Amos of King James Bible with tears, and said, their decision is wrong. The final verse of Amos proclaims as this: **" [15]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land, and they shall no more be pulled up out of their land which I have given them, saith the LORD thy God."(Amos 9:15)**

Because of the ignorance of a ruler, God sent the air force of Germany to bomb a city in England to be devastated. Now even in America, because of the politicians that are ignorant of the mystery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many innocent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catastrophes to death such as earthquakes, Tornado, flood or famine etc. We have to love the Jews; and have to take of them also. Let us remember the word of God for them:
"[3]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Gen. 12:3)